

관리번호

학교경영계획서

소 속

직 위

성 명

학교경영계획서

소속	○○○○○	직위		성명	○○○
----	-------	----	--	----	-----

Ⅰ. 학교교육 목표

1. 학교비전

작지만 큰 학교, 삶을 배움으로 만들자

2.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의 문을 열면서 교육과정을 잘 구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교육과정의 열거보다는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지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학교가 추구하는 인간상이고 이는 교장이나 교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와 소통하여 수정해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일 먼저 적어보고자 한다. 미래를 위해 인내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실수를 줄이는 반복적 학습과 습관 형성에 주력해야 하는 입시교육을 넘어, 남해보물섬고등학교가 추구했으면 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자율적인 사람

자율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세운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규제하는 일’이라고 되어있다. ‘자유’라는 표현이 훨씬 광범위하며 해석의 폭이 넓어 대안학교에 걸맞은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성원이 합의하기 쉽고 의미가 분명한 ‘자율’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자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율’적 판단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

나. 더불어 사는 사람

생물학적 인간의 본능은 생존에 있음에도 홀로만 살아가서는 생존의 분야에서조차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 사회에서 시달리다 보면 나를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더불어 살아야겠다는 왜곡된 깨달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학창시절에 더불어 산다는 긍정적 생존의 경험이 절실하다. 그 경험은 우연의 힘만으로 얻기는 쉽지 않다. 인류의 역사와 타인의 삶을 돌아보는 것,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접하는 경험이 더욱 필요하며 학교에서 이런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기 삶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아이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통점뿐 아니라 다 다르며, 각자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많다. 이는 획일화된 경쟁, 획일화된 교육,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경험이 적어서라고 생각한다. 학창시절에 자기와 대화하며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낼 수 있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경험을 통해 자연스레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미움이나 부러움을 씻어내게 되고 타인의 삶에 대한 존중감도 생기게 마련이다.

라. 내면의 힘을 믿는 사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한다. 꿈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신의 속도가 있듯이 꿈을 가지는 것도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데, 대개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빨리 꿈을 정할 것을 종용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

에 학생들은 쫓기듯 꿈을 가지고, 쫓기듯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더 슬픈 일은 그렇게 선택한 학과를 배경으로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며 시험준비로만 선택한 직업이 행복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꿈과 직업을 빨리 정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잘 알고, 어디 가도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의 내면을 잘 성장시킨다면, 그의 선택이 어떠한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조금하지 않게 자신을 잘 만들어 가는 기회를 학창시절에 충분히 가져야 한다.

마.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이거 배워서 어디 써먹어요?” 하는 질문이다. 대개 그 질문의 종착점은 고3때 수능에 필요 없는 과목 시간에 자거나 다른 공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필요에 의해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에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를 배우지 못하고 공부를 마감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정말 비극적이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는 당장 보이지 않는 막연한 출구를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명확한 답은 없지만, 현재까지의 답을 최선으로 생각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을 익히고 삶의 경이로움, 존재의 미약함과 겸손함, 진리를 향한 인류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나누는 경험을 하면 좋겠다.

3. 학교장 경영 철학

가.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 **믿음과 사랑:** 학생이 있어서 교육활동이 진행되고 학생의 활동으로 학교가 하나하나 구성되어 간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학생을 끼워 넣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방식의 운영을 지양하며 학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활동으로 학교의 뼈대를 세워야 한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계속 못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의 오만이다. 학생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학교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진다. 조그마한 씨앗 하나는 이미 큰 나무가 될 힘을 지니고 태어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양분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어른일 수도 있지만, 친구일 수도 있고 남해의 바람일 수도, 파도 소리일 수도 있다. 교사가 모든 것을 다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상상하지 못한 나무를 보게 될 것이다.

• **기회의 제공:** 학생이 중심이 된다고 하면 “학생이 알아서 하게 하고 교사는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학생들이 해보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갑자기 잘할 수 있겠는가? 학생이 중심이 된다는 행위의 핵심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학생들에게 넘겨줘서 주체가 되게 하자는 것이지 내버려 두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게 해야 한다. 어떤 일의 취지와 한계를 설정하는 일부터 그 일의 과정과 결과까지 그들이 고민하고 결정할 기회와 활동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교사는 더 세심하게 그들의 활동을 관찰해야 하고 함께 고민해줘야 하고 격려하는 역할까지 해줘야 한다. 학생이 조명을 받는 주연이지만, 사실 뒤에서 땀 흘리는 교사의 조연이 없는 주연은 존재할 수 없다.

• **동등한 인격체:** 학생은 아직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불안정하다는 교사의 태도는 어떤 면에서는 옳고, 그렇기에 교사들의 세심한 보살핌과 도움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학생들의 깊은 사고에 감탄한 적이 많았다. 어떤 부분에선 용기와 실천이 어른보다 월등한 경우도 많았고 그들의 조언을 듣거나 판단에 기댄 적도 많았다. 개개의 인간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각자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각자의 장점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때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설사 어느

학생의 부족함이 크다 해도 그것이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교사가 바로 서는 학교

• **교장 같은 교사:**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이다. 아무리 교장이 하고 싶어도, 아무리 학생이 원하는 활동이 있다 해도 교사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의 의사가 소중하듯 교장은 교사들의 의사와 생각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래서 교직원 모임은 열띤 토론과 깊은 소통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을 존중하고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들 모두가 교장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야 한다.

• **도전과 용기:** 대안학교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과정이 펼쳐지는 데에 비해 공립교사들의 경험은 제한적이기에 교사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때로는 학교의 활동들이나 학생의 생활방식이 교육적으로 어긋나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느슨한 방침이 학생들을 내버려 두는 듯 보이기도 한다. 법과 제도의 공고한 틀 속에서 공무원의 한계에 대한 고민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과정 속에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러나 실험을 즐기지 않고, 실패만 생각한다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안학교 교사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생활은, 자신의 경계를 하나둘 허물고 자신의 사고의 한계를 넓혀가는 데 있다. 교장은 그렇게 교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민을 나누며 그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다. 토론과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소통

- 합리적인 논의 결과를 도출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실천 가능
- 책임의 분산, 불안감 감소, 동료성 구축
- 논의 참여자 모두 주체가 됨

라. 살아가는 모든 행위에서 배움을 얻는 학교

• **귀 기울이기:**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자신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데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서로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만 관심을 간섭과 구별해야 한다. 내 뜻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하고 그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들어봐야 한다.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나 또한 자연스레 그의 말과 행동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된다.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또 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내면과 대화를 하고 스스로에게서 배움을 얻자.

• **세심하게 바라보기:** 자신이 미워하거나 보기 싫은 사람의 얘기는 참 듣기 싫고, 귀를 기울이기도 싫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은 자연스레 볼 수 있다. 귀 기울이기 힘들면 세심하게 보자. 역시 무언가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 오랫동안 귀를 막을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눈 감고 있기는 힘들다. 이왕 눈을 뜨고 있다면 그냥 보지 말고 세심하게 바라보자.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진실이 보일 때도 있고, 오해가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때도 있다. 역시 세심하게 바라봐야 하는 대상은 또 있다. 남해보물섬고의 보물중 하나인 자연이다. 자연이 시시각각 변하며 나에게 알려주는 것을 느껴보자. 단순한 일상을 살면서도 배울 건 너무 많다.

마.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학교

• **기후위기에 대한 대비와 실천:** 기후위기는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니며 다른 나라의 일도 아니라는 걸,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3년생인 그레타 툰베리가 UN 연설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교제도는 무의미하며 급진적인 실천이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많은 세계인이 공감했던 일도 벌써 1년이 지났다. 학교가 정말 무의미해지지 않으려

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역할을 학교 구성원 스스로가 해야 하며 남해보물섬고 또한 교육과정과 학교 활동의 전반에 기후위기를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배움과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

• **건강한 공동체:** 인간이 꿈꾸는 낙원은 어떤 것일까?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부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안 교육은 다양한 실험과 학생 개개인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대안적인 사회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역시 평화롭고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 **대안학교 연대:** 공립대안학교에는 태봉고등학교, 김해 금곡무지개고등학교, 거창 연극고등학교가 있고 사립대안학교에는 산청 간디고등학교, 합천 평화고등학교, 무엇보다 남해보물섬고의 자매학교인 상주중학교가 있다. 이 학교들은 각양각색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고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다. 각자가 부족한 것은 서로 돕고, 홀로 할 수 없는 교육 활동을 함께 해나감으로써 서로 서로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소통과 연구를 통해 함께 하는 경험들을 만들고 남해교육마을을 넘어 장기적으로 경남교육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

4. 교육 목표 구현 방안

가. 자유로운 소통과 협력 문화 구현

- 일제식 수업 지양, 교사와 학생이 함께 소통·탐구한다.
- 수업을 포함한 모든 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갖고, 배움의 과정을 성찰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한다.
- 혼자 하는 일과 함께하는 일을 고루 경험하여 협력과 연대의 힘을 느끼게 한다.
- 교육과정에 자신의 경험, 고민 나눌 기회를 충분히 제공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

나. 교육의 본질에 관한 탐구 수업

- 지식전달에 그치지 않고 수업 전반에 교과와 존재 의미에 대한 모색이 녹아나도록 한다.
- 수업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사의 개성과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상황에 맞는 수업 형식을 채택하고, 수업 내용 구성에 좀 더 집중
- 학생들의 질문을 소중히 여기고 수업 준비와 진행, 평가 전반에 학생들의 참여와 자발성을 끌어낸다.
-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 교사 간 협력체계 구축

다. 삶과 생활에서 배움 찾기

- 교과서 밖에서의 배움의 가치 또한 소중히 여긴다.
 - 현장에서의 모든 배움의 과정 즉, 실습프로그램(연극, 목공, 음악, 요리 등), 여행 프로그램, 개인 프로젝트, 그룹 프로젝트, 인턴십, 진로활동 등 운영

라. 내 삶이 배움 되게 하기

- 배움의 과정에서 끊임없는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발표함으로써 서로에게 배움의 과정이 되게 한다.
 - 활동 보고서 쓰기, 결과물 발표하기, 졸업논문 쓰기

마. 여백을 두고 성찰하기

- 성과 위주의 활동보다는 성찰 위주의 활동을 지향
 - 교육 활동 과정에 여백 두기

II. 학교교육과정 운영

1. 기본방향

가. 한명 한명을 소중히 여기는 맞춤형 교육과정

나.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다. 삶에서 배우는 생생한 교육과정

라. 학교와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교육과정

2. 실행계획

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 선택교과 확대
 - 기본교과에서 심화 과목의 선택폭을 넓이고, 대안교과에서는 편성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 학생 요구를 취합하여 수업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

나. 프로젝트 수업

프로젝트 수업은 한 교과에서 구성할 수도 있고 교과 간 연계를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학생이 기획과 설계과정에서부터 실행 및 평가 발표까지 이루어지는 행위를 통하여 배움에 몰입하고, 집단지성을 경험할 수 있다. 기본교과뿐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수업, 환경, 여행, 체험, 예술 수업 등 사실상 거의 전 교과가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

- 기본교과와 대안교과
 - 자율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의도에 의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도록 유도
- 프로젝트로 운영되는 수업
 - 개인, 그룹프로젝트, 졸업논문, 진로, 환경, 체험교과 등
- 체험 수업 및 여행 수업은 단계별 계획을 통해 프로젝트 수업으로 차츰 전환

다. 삶에서 배우는 생생한 교육과정

-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
 - 학기별 3단위로 편성하여 운영
 - 학생의 개별 관심사(직업 또는 흥미)에 따라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 및 평가하는 과정
 - 활동영역은 교내, 교외 모두 가능하며 도움 교사와 협의한 후 활동
 - 3~5명의 학생마다 도움 교사를 편성하여 상담, 관리
 - 한 학기의 활동이 끝나면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를 가지며, 기록능력이나 발표를 통한 언어 구성 능력, 남에 대한 공감 능력 향상

-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통해 자존감 상승
- 교외 활동을 통해 소통능력과 사회성 향상

• 여행 교과

- 지역에 따라 국내 여행, 해외여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내 여행은 학기별 1회를 실시하고 해외여행은 3년 중 1회 운영함
- 방식에 따라 학년별 여행, 그룹별 여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함
- 주체에 따라 교사주도형, 혼합형, 학생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사주도형에서 학생주도형인 프로젝트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

• 해양수업

- 생존 수영, 바다 수영, 스킨스쿠버 자격증 과정
- 학년별 다른 주제를 설정하여 운영

• 체험 및 예술 교과

- 목공, 요리, 실용음악, 제과제빵, 미술, 사진, 영화 등
- 선택교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
- 삶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가꾸는 예술 활동 활성화

라. 중점추진과제

중점과제1	지구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기
환경 수업, 평화여행, 적정기술, 생태지도 만들기	

중점과제2	학교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기
공동체 총회, 한주 열기, 학생자치 활성화, 회복적생활교육	

중점추진과제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설정한다.

이는 <작지만 큰 학교, 삶을 배움으로 만들자>는 학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배움이라도 건강한 학교 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지 않는다면 건조한 이론에 불과할 뿐이다. <더불어 살아가기>를 중점추진과제로 삼아 남해보물섬고 구성원 한명 한명이 학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가자는 취지이다.

Ⅲ. 학교교직원 관리 및 지원

1. 기본방향

- 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사
- 나.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교사
- 다. 학생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사
- 라. 교육 주체의 민주적 소통 지원

2. 실행계획

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사

- 자신의 교과에 본질을 탐구하는 교사
 -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교과를 재구성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교육의 내용과 수업방식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새로운 배움을 만들어나가는 교사
 - 작은 대안학교의 특성상 기본교과, 비 전공교과 뿐 아니라 다양한 선택과목이나 동아리 지원도 이뤄야 하므로, 새로운 배움 거리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교사가 되도록 지원

나.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교사

- 가르침에만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배워나가는 교사
 - 일반 학교 교사의 관점에서만 학생을 대하면 곤란한 점이

많이 생기게 되므로 열린 마음으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 자기 삶을 살아가는 교사
 - 자율적이고 열린 문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둘 풍요롭게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

다. 학생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사

-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학생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

라. 교육 주체의 민주적 소통 지원

-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들이 위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교사들이 교육 주체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
- 교사연수 활성화
 - 대안 교육, 민주적 의사소통, 수업 본질 탐구 등을 위한 체계적 연수 프로그램 마련
 - 경계 없이 편안한 교사 간의 정기적, 비정기적 모임을 통해 자유로운 소통과 협력체계 마련
 - 초청 강연, 견학 및 출장연수, 교사동아리 활동, 교재연구비 적극 지원

IV. 지역사회 연계 활동

1. 기본방향

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부모

나.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다. 마을 학교로 바로 서기

2. 실행계획

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부모

- 학부모 모임 활성화 및 소통 강화
 - 정기적 모임 및 다양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마련
 - 자발적 학부모 멘토 활용

나.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 지역사회 전문강사와 멘토 확보
 - 남해 마을학교, 상주중 학부모협동조합, 남해대학교, 청년 마을 팜프라촌 등
- 지역과 연계하는 프로젝트 활동
 - 작은집 짓기, 농가 리모델링, 마을 살리기, 바다 정화 활동

다. 마을학교로 바로 서기

- 읍도마을 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 시설개방
- 마을의 문화센터 역할
 - 문화가 있는 밤 운영: 영화상영, 공연, 초청 강연
 - 열린 행사: 먹거리 나누기, 마을 장터 등 운영
- 함께 가꾸는 마을
 - 프로젝트 활동: 마을의 생태지도 만들기, 마을의 역사 수집하고 정리하기,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기

V. 시설, 환경, 재무 등 일반경영

1. 시설관리 및 환경관리

가. 환경을 생각하는 학교 시설관리

- 학교 주변과 마을의 생태지도를 제작하여 환경 가꾸기
- 1회 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환경을 생각하는 교육 활동
- 필요한 물품을 수업을 통해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

나. 학생자치 공간 활용하기

- 학생들이 스스로 꾸미는 자치 공간
 - 수업과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생들이 공간을 채워나가도록 유도

다. 아름다운 학교도서관 만들기

- 쉼과 배움, 문화가 있는 학교도서관 만들기
 - 바다가 보이는 통창 및 야외 테라스 활용하도록 시설물 설치, 문화 프로그램 기획, 개인 공간 마련

라. 문화가 있는 다목적실 만들기

- 공연장 및 전체 모임의 공간
 - 공연과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조명, 거울, 의자, 신발장 등 부대 시설물 설치

2. 재무관리

가. 예산 편성 및 집행

- 학생활동 및 교육 활동에 우선하여 지원하며, 집행 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즉각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협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나. 학교발전기금 확보

- 장기적 학교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사회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꾸준히 마련
- 학교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경제적 곤란을 겪는 학생에게 우선하여 배정될 수 있도록 함

다. 지원사업 활용

- 교육청 지원사업 및 정부 기관, 민간기관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 활동과 연계함